

멀티맨 성장 고영우

그는 오늘도 두 개의 헬멧과 세 개의 글러브를 챙겨 들고 경기장에 나간다. 무엇보다 특 별할 것 없던 KIA 고영우가 사는 법이다. KIA 내야수 또는 외야수 고영우의 장비 가방에는 짐이 한 가득이다. 좌·우 타석에 모두 서는 스위치 타자라 헬멧이 두 개, 내·외야를 어우르는 포지션 덕에 연습용까지 세 개의 글러브를 가지고 다닌다. 그나마 1루로 나갈 때는 팔이 미트를 빌려주기 때문에 짐을 줄일 수 있었다.

지난 29일 경기까지 76 경기에 나온 고영우는 42 타석에 서는데 그쳤다. 그나마 12타석은 최근 다섯 경기에서 채웠다.

7안타 15득점. 바람처럼 나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던 고영우였다.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딱 집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던 고영우가 짐목을 깎았다. 고영우는 8월 25일 SK와의 연장 10회 대주자 고영우는 짧은 중견수 플라이 때 홈을 파고 들어갔다. 고영우는 비디오 감독 끝에 아웃을 세이프로 뒤집고 결승득점을 만들었다. 대주자 고영우는 대주비 고영우로 업그레이드됐다. 외야수로서의 첫 시즌이지만 투수와 포수를 뺀 전 포지션에 이름을 올렸다.

고영우는 “외야는 프로에서 거의 처음이지만 자신 있었다. 초반에는 저녁 경기에 적응이 안 되기도 했는데 뭔가 편했다.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기는 했다. 잠실에서 공이 라이트에 들어가서 놓친 적이 있다. 유격수와 2루수가 가장 편하다. 많이 해보지 않았고, 주자와 수비수끼리 겹치는 플레이가 있어서 1루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주루와 수비에 이어 공격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특별한 것 없던 고영우는 ‘멀티플레이어’가 됐다. 최근 5경기 11타수 5안타(타율 0.455). 지난 28일 LG원정에서는 프로 데뷔 홈런도 기록했다. 오른손잡이인 그는 최근에는 좌타석에 주로 서고 있다. 파워 대신 정교함과 선구안으로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고영우는 “좌우 타석, 내외야서 연습을 한다. 할 게 많다(웃음). 하나씩 치기도 하고 스타팅으로도 나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졌다. 첫 홈런 때는 잘 맞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잠실이나가 넘어갈 줄 몰라서 열심히 뛰었다. 2루에 가서 공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함성 소리를 듣고 알았다. 기분이 좋았는데 팀이 너무 크게 지고 있어서 마음이 좋지 못했다”며 “그동안은 경기에 잘 안 나가니까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 말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1군에서 살아남자,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올라가자고 다짐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댓글들도 봤지만 ‘나중에 잘할 것이니까’하는 마음으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시즌이 끝나서 아쉽다”고 웃었다.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남긴 고영우. 친동생인 kt 투수 고영표와의 만남도 그리고 있다. 고영우는 “가족끼리 모이면 엄마가 동생한테 형 하나 맞춰주라고 하신다. 동생은 승부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으면서 단호하다(웃음). 내년엔 꼭 멋진 승부를 하고 싶다”며 “말이 없는 것뿐이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다. 지난해 교육리그에 가서 심리적인 것을 많이 배웠는데 자신있게 하면서 야구장에서 빛이 나아한다고 했다. 자신있는 모습으로,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투수·포수 제외 전 포지션 전천후 활약
파워 대신 정교함·선구안 위해 좌타석 집중
최근 5경기서 프로 첫 홈런 등 4할대 맹타



코리안 메이저리거 어제 뭐했어?

추신수, 21호 홈런·31번째 2루타

시즌 개인 최다홈런 '-2'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21호 홈런(사진)과 31번째 2루타를 쳐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지난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메이저리거 홈 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7-6 팀 승리를 견인했다.

첫 타석부터 추신수의 배트가 불을 뿜었다. 0-2로 뒤진 1회말 무사 1루, 첫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디트로이트 왼손 대니얼 노리스의 시속 150km짜리 몸쪽 높은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동점 홈런을 쳤다. 2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3일 만에 추가한 홈런이다.

추신수가 남은 경기에서 홈런 1개를 추가하면 201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며 기록한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22개)과 타이틀을 이룬다. 좌투수 상대 홈런은 이미 시즌 최다 타이틀을 이뤘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좌투수에 상대로 6개의 홈런을 쳤다. 2009년 시즌 총 20홈런을 치며 좌투수에 홈런 6개를 뽑아냈을 때와 같다.

2회에는 1루 땅볼에 그친 추신수는 4회 세 번째 타석에서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완성했다. 6-6으로 맞선 4



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등장한 추신수는 디트로이트 오른손 볼펜 벅 파머의 시속 151km 직구를 공략해 좌측 펜스를 맞고 떨어지는 2루타를 쳤다. 올시즌 추신수의 31번째 2루타다. 추신수는 후속타자 에드ريان 벨트레의 우월 2루타로 홈을 밟았다. 난타전이 펼쳐진 이날 경기의 결승점이었다.

추신수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상대 1루수 실책으로 1루를 밟았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75에서 0.276으로 올랐다. 올 시즌 그의 최고 타율이다.

텍사스는 7-6으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고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향한 매직넘버를 4로 줄였다. 디트로이트는 9회초 1사 1·3루 기회를 잡았지만 라자이 데이비스가 스쿼즈 번트를 실패하고 이안 킨슬러가 중견수 뜬공으로 몰려나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연합뉴스

강정호, 휠체어 타고 홈 경기 응원

“더 강해져 돌아올 것”

왼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에 돌입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홈 구장 PNC파크를 찾아 팀 동료들을 응원했다.

MLB닷컴은 지난 30일(한국시간) “강정호가 피츠버그 동료에게 좋은 자극을 줬다”고 강정호의 PNC파크 방문 소식을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피츠버그 동료와 만났다. 강정호가 PNC 파크를 찾은 건 부상을 당한 후 처음이다.

MLB닷컴은 “강정호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의 부모가 강정호 곁을 지켰다”고 당시 장면을 묘사했다.

피츠버그 2루수 닐 워커는 “강정호는 매우 고된 재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이후를 바라보는 듯했다”며 강정호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탄했다. 이어 “강정호가 부상을 당한 뒤 피츠버그 선수들은 문자 메시지로 강정호와 연락했다.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니 더 좋았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클린트 허들 감독은 “강정호가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며 “미소를 잃지 않은 강정호의 모습을 보게 돼

기뻐했다. 그와 포옹을 했다. 강정호의 부모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 ‘아들을 잘 돌봐주고 감사하다’며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9월 18일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왼 무릎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컵스 크리스 코플란이 강정호가 공을 제대로 1루에 던질 수 없도록 2루 베이스가 아닌 강정호의 무릎을 겨냥해 슬라이딩했고 강정호는 왼쪽 무릎 직접 염골을 보니 더 좋았다. 6~8개월의 재활이 필요한 부상이지만 강정호는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에 나타났다. 팀 동료와 감독은 강정호 덕에 웃었다. /연합뉴스

류현진, 다저스 3연속 지구 우승 자축

현역 최고 투수로 꼽히는 클레이턴 커쇼(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완봉 역투를 펼치며 3년 연속 지구 우승을 이끌었다.

다저스는 지난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메이저리거 지구 라이벌전에서 8-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88승 69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2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82승 75패)에 6게임차로 앞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확정했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서부지구 최강팀으

로 자리잡은 다저스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우승 3연패도 달성했다. 여객 재활 중인 류현진(다저스)은 샌프란시스코 원정에 동행해 지구 우승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이날 경기는 커쇼와 매디슨 벵가너의 에이스 맞대결로 주목받았다. 특히 최근 4연패, 올 시즌 AT&T 파크 원정 7연패 등에서 허덕이던 다저스는 커쇼의 호투가 절실했던 경기였다. 커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9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1피안타 무실점의 완봉 역투를 펼쳤다. 반면 벵가너는 솔로포 3개를 허용하며 5.2이닝 5피안타 4

실점(3자책)으로 부진했다. 커쇼는 타석에서도 벵가너를 괴롭혔다. 커쇼는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2루 땅볼에 그쳤지만 파울 커트 치는 등 벵가너에게 공 13개를 던지게 했다. 커쇼는 16승(7패)째를 올렸고, 삼진 13개를 잡으며 시즌 탈삼진 수를 294개로 늘렸다. 정규시즌에서 한 차례 더 등판할 예정인 커쇼는 2002년 랜디 존슨과 함께 시즌 300탈삼진에 도전한다.

벵가너는 시즌 9패(18승)째를 당하며 팀의 포스트시즌 탈락이 확정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연합뉴스